

귀농귀촌인에게 영농정착금·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올해로 8년 연속 '귀농·귀촌도시' 부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고창군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꿈을 펼치고 싶은 지역으로 꼽힌다.



고창군은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귀농인을 돕는 영농정착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총 1만1483가구, 1만6400명이 이 지역으로 귀농 귀촌했다.

예비 귀농귀촌인이 입주해 창업교육과 기초영농교육을 이수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새내기농업학교, 마을환영회, 귀농귀촌 멘토, 동아리활동 등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종합교육시설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고창군은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귀농인을 돕는 영농정착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총 1만1483가구, 1만6400명이 이 지역으로 귀농 귀촌했다.

고창군은 청정한 자연 환경과 다양한 생태계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풍부한 일조량과 게르마늄 함량이 높은 황토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재배한 복분자, 수박, 멜론, 고추, 풍천장어, 바지락 등 농특산물이 풍부하다.

관광객 1000만시대... 테마공원 등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단양군이 '2020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8년 연속 힐빙(heal-being) 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단양팔경(丹陽八景) 등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잘 알려진 단양은 2008년부터 '대한민국 녹색심포'로서 도시브랜드를 키워가고 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민선 6기에 들어서며 단조로운 관광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고자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단양강잔도, 수양개빛 터널 등 다양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했다.

상례포츠시설 조성 등 체류형 관광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지역 대표 상권인 단양구경시장도 레저, 체험형 관광시설을 즐긴 뒤 들러야 하는 미식가들의 성지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키워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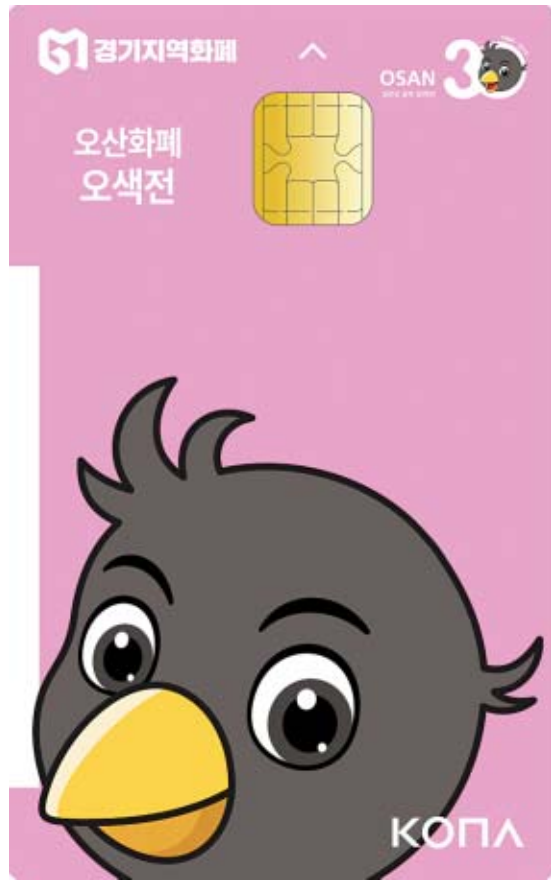
그 결과 작년 단양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총 1067만3401명으로,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현재 북백지구테마공원 조성사업, 별곡수

지역화폐 올해 400억 전망... 소상공인에 활력



오산시의 지역화폐인 '오색전'이 '2020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대상'에서 지역화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오색전은 오산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4월 전국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역원에 이를 전망이다. 광상옥 오산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더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오방색을 기초로 오산의 상징 5가지(까마귀, 은행나무, 매화, 오산천, 독산성과 세마대지)를 담아 골목상권 및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출시됐다.

오색전은 모바일(경기지역화폐 앱)과 NH농협은행,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오산신협 등 21개소에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며 오산 시내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희 및 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오산 시내 모든 영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색전은 5월 20일 기준 12만 1623장이 발급됐으며 일반발행 140억원, 정책발행 87억원 등 총 227억원이 발행됐다. 앞서 오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최초로 100%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22만 시민 중 절반 이상이 최단 기간에 지역화폐를 발급받은 것으로, 올 한해 발행액은 400

허지윤 기자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권역별 3개소로 확대 운영 계획



진주시가 자랑하는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은 야간경제활동, 병원진료 등 긴급한 사정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던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준다. 작년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가 좋아 올해부터는 권역별 3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서비스인 '해피바스데이'는 장난감 구입에 따른 유아부담을 덜어주면서 1일 평균 7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도 누리과정 아동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262개소 어린이집에 공기청

정기 1331대를 보급하고 유아당 월 1만원의 간식비를 지원한다.

육아 참여행사,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으로 저출생 현안과 육아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자랑하는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은 야간경제활동, 병원진료 등 긴급한 사정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던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준다. 작년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가 좋아 올해부터는 권역별 3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서비스인 '해피바스데이'는 장난감 구입에 따른 유아부담을 덜어주면서 1일 평균 7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양육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교복구입비 지원, 공동육아실과 북카페, 놀이방을 갖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임산부의 날, 아바

또 복지·보건 등 7개 분야 628개 단위 사업 매뉴얼을 구축해 전화 한 통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주복지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연지윤 기자

음향기기 넘어 문화콘텐츠 플랫폼 정착



음향기기 전문 업체 ODE(오디)는 최적의 음향 시스템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멤버십 씨어터 등을 운영하며 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플랫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을 즐길 수 있다. 이곳은 단순히 오디오 장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접근했다. 2018년 12월엔 프리미엄 멤버십 씨어터 오르페오(ORFEO)를 개관해 콘텐츠의 폭을 넓혔다. 차별화된 사운드 시스템을 갖춘 두 공간은 기업 행사 및 이벤트 장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각 브랜드의 기술과 개성에 맞춰 설계한 신사동 ODE 매종(ODE Maison)을 시작으로 서울 신라호텔 아케이드, 롯데백화점 본점, 대구 신세계백화점 등에 오디오 쇼룸을 오픈하고 소비자용 하이엔드(high-end) 오디오의 접점을 확장해왔다. 복합문화공간 ODE 포트(ODE Port)에서는 클래식, 재즈 공연, 음악 강연 등

오디는 지난 3월, 서울 한남동 고급 주거단지 '나인원 한남'에 에드비알레의 플래그십 스토어와 청음 라운지를 오픈했다. 부산 해운대에는 '오디 부산'을 연다. 케이터링 서비스와 도슨트 청음 투어 등 컨시어지 서비스를 각 장소에 적용해 폭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빈 기자



1000~2000원대 점포간 택배 서비스



BGF네트웍스 CUpost는 편의점 CU에 특화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102개국에 배송 가능한 국제 택배와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택배 기사가 방문 수거하는 '홈택배'도 운영한다. 쿼 서비스 이용 시 분실 훼손을 전액 보상하는 '안심 쿼 배송' 서비스도 진행한다.

저가 점포 간 택배 서비스 'CU끼리'를 최근 선보였다. 합리적인 가격에 주말 및 공휴일 수거 배송까지 가능하다.

고객 서비스 만족을 최우선시하는 CUpost는 택배 이용자의 다양한 니즈(욕구)를 충족시키고자 CU 자체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한 1000~2000원대 초

카카오페이 보험 계열사 '인바이유'와 제휴를 맺고 택배 장비 화면의 QR 코드 인식을 통해 3분 내로 가입이 가능한 운전자 보험과 해외여행자 보험을 실속 있는 가격대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내놨다.

이밖에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와 함께 '유기동물 후원 프로젝트'를 시행해 택배 수익 일부를 유기동물 지원에 보태고 있다.

박용선 기자



전국 5500가구 이상 임대관리 서비스



임대관리 전문기업 더굿하우스가 '2020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임대관리서비스 부문 1위에 올랐다.

더굿하우스 관계자는 "임대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정성을 도모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 주요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임대관리 선도기업으로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굿하우스는 전국 5500가구 이상을 임대관리한 경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굿하우스 측은 향후 주거트렌드로 자리잡게 될 임대관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임대수익 보장은 물론 가구 내 하자보수, 체계적인 임차인의 입·퇴거 관리, 계약과정의 일원화 등 임차인의 거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1금융권과의 협약, 각종 지급보증서·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했고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전세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있다. 또 관리 가구의 원상복구 의무화, 임대차 조건신고, 세무대행 서비스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연지윤 기자

